

국립무형유산원 2017 주요업무계획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체계 확립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올해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체계를 확립하여 소중한 자산을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산원은 전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무형유산 지식기반 축적 및 활용 강화, 국내외 무형유산 네트워크 중심축 형성, 국민과 함께하는 무형유산원을 중점과제로 도출했다.

이에 대한 주요 실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무형유산 네트워크 중심축을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사업'도 펼친다. 2017년에는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무형유산의 목록화·홍보영상·기록화 제작 등 전주시에 협업을 통한 지역무형유산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3월~12월 중에는 전북대 창의인재 무형유산교육 기관과 함께 지역연계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활성화된 종목과 젊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무형유산 브랜드 공연 화제형·공연 등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에 월별 주제를 선정하고 토요일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토요일공연을 총 40회 운영한다. 전승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7년 이수자녀의 공연 횟수·참여 범위를 늘이며 대중적인 친근한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을 이어간다.

▶ 전승자 맞춤형 지원 확대

디자이너와의 협업 통한 전승공예품 현대화 모색

▶ 무형유산 지식기반 축적

전시·공연·체험 등 통한 아카이브 활용 극대화키로

▶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 추진

올해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무형유산보호 체계 마련

먼저 유산원은 전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승자와 디자이너 협업을 통한 전승공예품 현대화를 모색하며 '전승공예품 은행' 운영 체계화를 통해 공예품의 작품 구입기준을 마련해 구입처를 확대 전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의 토대인 이수자 선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승자 교육 및 이수자 전문 강사를 육성 하는 등 무형문화재 교육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유산원은 무형유산 지식기반 축적 및 활용 강화를 위해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서의 국내외 무형유산 관련 영상 상영을 비롯해 전시·공연·체험·부대행사 등을 통해 아카이브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문

발굴, '동아시아의 직조기술과 문화' 초청 전 및 학술세미나를 추진하여 국내외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무형유산원은 한옥마을~무형원 간 인도교 건립에 따른 진입부 정비비 비롯해 4계절 꽃피는 무형원을 조성하는 등 무형원에 대한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으로 국민행정 서비스를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편 작촌문학상에 전병륜 작촌예술문학상에 정곤 작가 국제펜클럽 전북위원회, 수상자 선정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전북위원회(위원장 김경희)는 제11회 전북편 작촌문학상에 전병륜 시인을, 작촌예술문학상에는 정곤 수필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병륜 시인



정곤 수필가

전북편문학상은 '작촌 조병희 시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지난 2년간 우수한 작품활동을 한 회원에게 전북편작촌문학상을, 신인으로서 잠재가 촉망되는 문인에게 작촌예술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정정구 평론가를 위원장으로 소재호 시인과 안도 전북문인협회장이 맡았다.

전정구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대상자들의 문단경력이나 작품 활동, 그리고 발간한 작품집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심사위원들은 논의된 문인들의 작품이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 판단하여 속의를 거듭한 끝에 '작촌예술문학상' 수상자는 수필가 정곤으로, '본상' 수상자는 시인 전병륜으로 심사위원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작촌문학상 수상자인 전병륜 시인은 <문예사조> 등 단하여 진안문인협회 초대 회장과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북시인협회, 전주문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꽃 지문> <눈(無腦)> 등 4권이 있다.

작촌예술문학상 수상자 정곤 수필가는 <수필과 비평>으로 단하여 수필과비평작가회의 전북지부 감사, 국제펜클럽한국본부전북위원회 회원, <월전문학> 회원, <덕진문학>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2월 14일 오후 4시 전북문화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시상금은 본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 예술문학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이 각기 수여된다. /정해은 기자

다시 만난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상처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단지 세상의 끝' 내일 상영

보편적 감정 담아내
가족관계 섬세하게 그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 화제작소, 4층)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거장 자비에 들란의 신작 '단지 세상의 끝'을 오는 19일 상영한다. 관객설문조사 결과 반영 작인 <단지 세상의 끝>은 제99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그랑프리) 수상작으로 신선한 감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자비에 들란 감독의 6번째 장편영화다. 영화는 세계적인 천재 극작가 장 뤽 라가르스의 동명 희곡을 감독이 재해석한 작품으로, 죽음을 알리기 위해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유명 작가 '투이'를 통해 서로 재회한 가족들이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그렸다. 작품은 가족·사랑·죽음 그리고 소통의 부재 등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며,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더 깊고 넓어진 가족 관계를 생생하고 섬세하게 그려냈다. 젊은 거장 자비에 들란과 마리옹 꼬띠아르, 뱁상 카셀 등 프랑스 대표 배우들의 출연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해은 기자



리고 소통의 부재 등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며,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더 깊고 넓어진 가족 관계를 생생하고 섬세하게 그려냈다. 젊은 거장 자비에 들란과 마리옹 꼬띠아르, 뱁상 카셀 등 프랑스 대표 배우들의 출연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군산시립교향악단, 내일 신년음악회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9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 해의 설렘과 희망, 그리고 군산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는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한국의 전통미 가득한 사물놀이와 플루트, 현악기, 관악기 등이 함께하는 경쾌하고 힘찬 공연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백정현 지휘자의 지휘로 '오페라 원저의 유쾌한 아나네들'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리고, 아름다운 플루트 연주자 이은준이 <공포모음곡> 등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교향악단 현악파트가 특별히 선보이는 '혈을 위한 세레나데'와 관악파트의 트럼펫이 '나팔수의 휴일' 등을 연주하고 '후파랍과 그의 개'를 후파랍 소리 연주자 박정민이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동남풍 사물놀이패와 교향악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 신묘음 중 '놀이'로 동서양의 음악적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초등학생 이상이며,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인터넷 예매는 종료되었고 현장티켓은 공연 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 배부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7년 1월 18일>

<p>▷ 쥐띠 48년생: 지병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60년생: 예상밖의 일로 곤경에 처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라. 72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84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매사 70%에 만족하라.</p>	<p>▷ 소띠 49년생: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타인과 상의하고 결정하라.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3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귀인이 도움을 줄 것이다. 85년생: 동기기에 화합하기 좋은 운이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p>	<p>▷ 호랑이띠 50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62년생: 다른 사람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언쟁은 삼가라. 74년생: 자신보다 힘든 상황에 베풀면 덕이 돌아온다. 86년생: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p>	<p>▷ 토끼띠 51년생: 상황에 비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운이다. 63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쉽게 풀리니 기쁨이 있는 운이다. 75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발생한다. 87년생: 상황에 대해 탄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운이다.</p>
<p>▷ 용띠 52년생: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운이다. 64년생: 금전손실이 따르는 운이니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이다. 76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나 분수취의 일은 불리하다.</p>	<p>▷ 뱀띠 53년생: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면 좋은 결실이 따를 것이다. 6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요심을 버리고 큰 일은 삼가라. 77년생: 평소 소홀했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받을 일이 생긴다.</p>	<p>▷ 말띠 54년생: 지갑은 열고 마음은 줄이라는 것은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66년생: 뒷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운이다. 7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섭생에 주의하라. 90년생: 평소 약속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p>	<p>▷ 양띠 55년생: 금전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쪽에서 먹으면 다른 곳에 지출할 일이 발생한다. 6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발생한다. 91년생: 소회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과식을 삼가는 것이 좋다.</p>
<p>▷ 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운이다. 68년생: 작은 악힘이 따르니 후반에는 잘 풀리니 지나친 근심은 불필요하다. 8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p>	<p>▷ 닭띠 57년생: 그동안 베풀었던 덕이 돌아오는 운으로 타인과의 얽혀있던 매듭이 풀리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9년생: 처음에는 막힘이 따르니 후반에는 풀리게 된다. 81년생: 타이밍과 화합이 중요한 운이다. 9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구인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운.</p>	<p>▷ 개띠 46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은 좋으나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아 상황판단능력이 저하된다. 82년생: 금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p>	<p>▷ 돼지띠 4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손해볼 수 있다. 59년생: 인장적이지 않은 재물의 유통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 7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여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83년생: 좋은일과 어려움이 함께 발생한다.</p>